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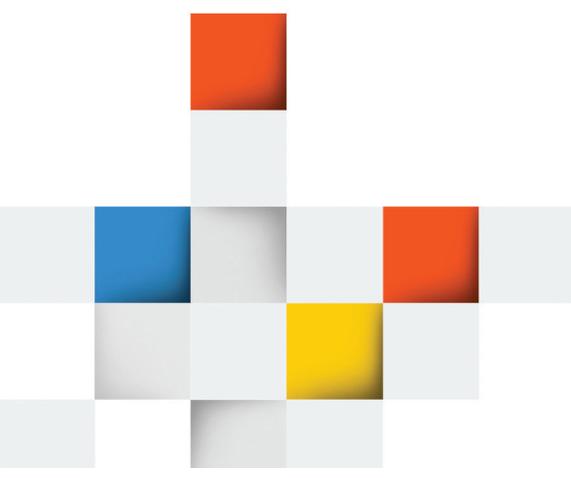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2021**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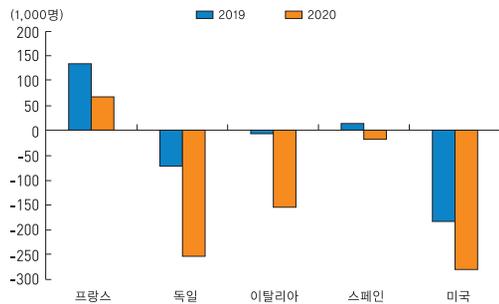
# 코로나19와 자영업 노동시장 변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비대면화에 따른 택배 및 배달의 증가, 농림어업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 이번 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인한 특성상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볼 때 조업 단축, 일시 휴업을 통해 위기를 넘기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음식배달처럼 비대면화 흐름에 일부라도 편승할 수 있었던 업종은 2020년 말부터는 다소간이라도 개선 흐름이 나타났으나, 그럴 수 없었던 대면 서비스 업종은 4차 대유행기까지 감소 추세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감소 추세 또한 뚜렷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소득 감소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코로나19 정책 대응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것이 아니며, [그림 V-20]에서와 같이 선진 산업국가 중 자영업 부문 비중이 큰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뿐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으며 어떤 부문에서 영향이 컸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림 V-20] 주요 국가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 2020



주: 1) 통계치는 전년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ILO, "Employment Statistics", ILOSTAT(<https://ilostat ilo.org/topics/employment/>).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이 1년 반째 지속되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자영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재확산이 거듭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자영업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에

## 위기별 자영업 고용 변화

코로나19 감염병이 2020년 2월부터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그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며 노동시장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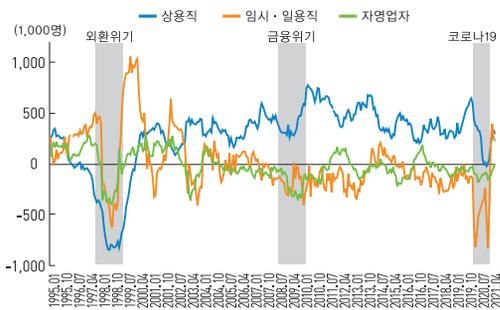


부정적 충격이 가해졌다. 위기 성격은 다르나 우리나라는 큰 경제위기를 1997년(외환위기)과 2008년(금융위기)에 겪은 바 있다. 3차례의 위기에서 각각 어떻게 노동시장 충격이 나타났는지를 보면, 취업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21]을 보면 외환위기는 대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모든 종사상 지위에 고용충격을 남겼다. 특히 상용직에서 크게 고용이 조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며, 회복도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에 비해 더딘 모습을 보였다. 자영업은 외환위기 충격에서 빠져나온 뒤에도 2003-2004년 카드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대형마트 확산과 프랜차이즈 확대 등에 따른 자영업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추세적 감소를 지속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주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여 외환위기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했지만, 자영업은 이 시기에도 외환위기에 버금가게 감소하였다. 이 두 위기와 비교해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인한다. 주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났고, 이들 업종에 주로 고용되어 있는 임시직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앞선 두 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긴 하지만 자영업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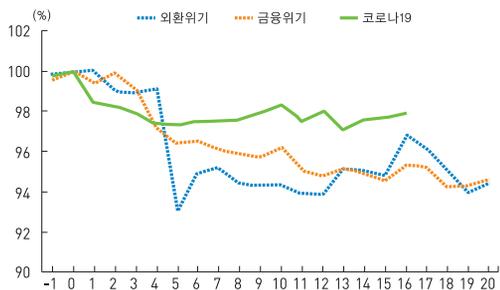
[그림 V-22]의 경제위기별 자영업 고용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코로나19에 의한 충격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림 V-21] 경제위기 시 취업자 수 변화, 1995.1-2021.6



주: 1) 음영은 위기기간으로 나타낸 것으로, 외환위기는 1997년 9월-1999년 4월, 금융위기는 2008년 8월-2010년 3월, 코로나19는 2020년 3월-2021년 3월임.  
2)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V-22] 경제위기 발생 이후 20개월간 자영업자 수 변화, 1997, 200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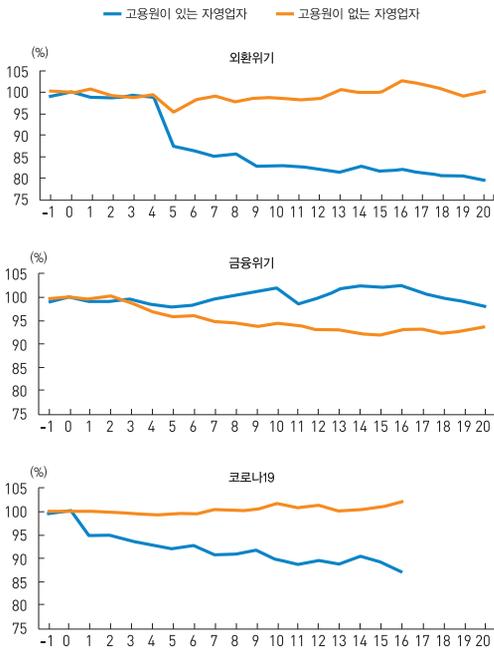


주: 1) 가로축은 각 위기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의 개월 수를 의미함. 발생시점의 경우 외환위기는 1997년 8월,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코로나19는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2) 통계치는 각 위기별 발생시점의 자영업자 수를 100으로 할 때 해당 시점 자영업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계절조정 반영).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러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나눈 [그림 V-23]을 보면 코로나19 위기는 외환위기와 유사하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고용충격이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난다. 반면 금융위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나타나며 위기 이후 15개월 후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해야 하는 만큼 자영업자에게는 대출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부가

[그림 V-23] 경제위기 발생 이후 20개월간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수 변화, 1997, 200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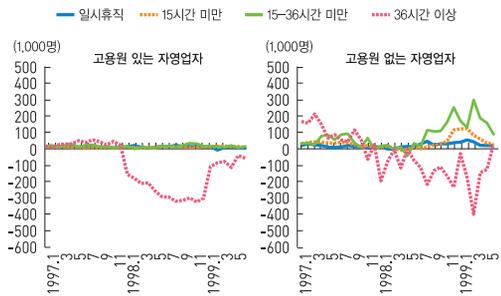
주: 1) 가로축은 각 위기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의 개월 수를 의미함. 발생시점의 경우 외환위기는 1997년 8월,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코로나19는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2) 통계치는 각 위기별 발생시점의 자영업자 수를 100으로 할 때 해당 시점 자영업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계절조정 반영).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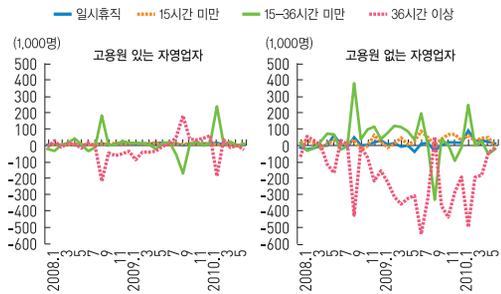
가치세 감면, 인건비 지원 정책 등이 지원되면서 다른 경제위기와 다른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림 V-24]를 보면 다른 위기와 마찬가지로

[그림 V-24] 경제위기 시 고용원 유무 및 취업시간별 자영업자 수 변화, 1997, 200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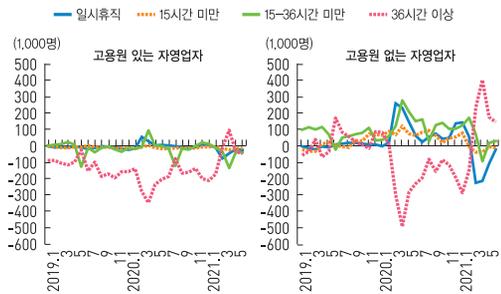
1) 외환위기 (1997.9-1999.4)



2) 금융위기 (2008.8-2010.3)



3) 코로나19 (2020.3-2021.2)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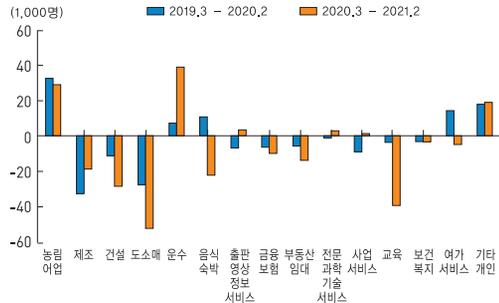
주 36시간 초과해 일하는 자영업자는 크게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위기 시에 특히 일시휴직과 15시간 미만 및 15-36시간 단시간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위기 시에는 타격을 입은 전일제(36시간 초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폐업에 내몰렸다면, 이번 위기 시에는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시휴업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또한, 이번 위기 시에 일시휴업 및 근로시간을 줄이는 현상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때에도 근로시간 축소 형태의 조업단축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게서 발견되기는 하지만, 일시휴업까지 포함하면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조업단축이 나타났다.

### 코로나19 위기 이후 자영업 부문별 충격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서비스, 교육, 여가서비스업이 거의 절반(48.2%)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산업들은 대표적인 대면서비스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대면으로 가능한 업종은 활성화되었는데, 운수창고업은 배달 및 택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V-25).

[그림 V-25] 산업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3-2021.2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업종별 상황을 보다 상세히 보기 위해 <표 V-11>의 산업 소분류 수준으로 나누어 보면, 일반교습 학원과 기타 교육기관의 자영업자와 음식점업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수혜를 받은 무점포 소매업(전자상거래)과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와 배달)에서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확연히 대조된다.

<표 V-11> 산업 소분류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 2020

	(1,000명)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체	-41	-42	-72	-78
작물 재배업	27	41	56	22
생활용품 도매업	4	-1	-12	-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	-11	-6	10
무점포 소매업	7	0	-1	9
소화물 전문 운송업	-2	-1	17	20
음식점업	12	10	-18	-2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0	-5	-20	-18
일반 교습 학원	-12	-15	-14	-16
기타 교육기관	12	-1	-19	-27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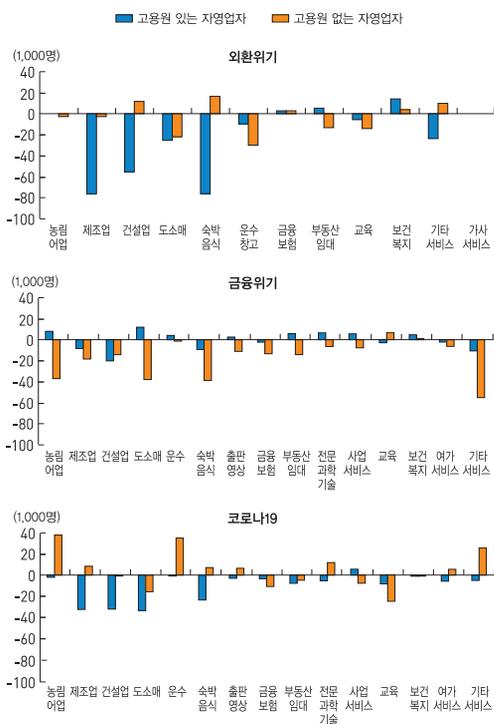
다른 위기와 비교를 위해 취업자 감소가 가장 컸던 1998년, 2009년,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분석해보았다. 외환위기 때는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서비스업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가 컸고,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감소가 두드러졌다.

금융위기 때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처럼 금융위기와 직접 관련된 업종에서는 고용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영업자 감소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해외 수출과 부품 공급망이 마비되고 대면서비스업이 위축된 특성상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폐점보다는 일시적 위기 상태를 각종 지원 등에 기대어 견디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이나 여가서비스 같이 타격을 입은 업종에서 다소 증가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그림 V-26] 경제위기 시 고용원 유무 및 업종별 자영업자 수 변화



주: 1) 외환위기는 1998년, 금융위기는 2009년, 코로나19는 2020년 기준임.  
 2) 통계치는 전년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27]은 보다 자세한 업종분석을 위해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를 이용해 월별 업종의 업체 수 변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점의 경우 1차 대유행인 2020년 2월 말에서 3월에 감소폭이 커진 후 7월에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8월과 9월 2차 대유행, 12월에서 2021년 2월 3차 대유행에 따라 회복하지 못하고 감소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3월 들어 코로나 추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약간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생활업종인 여행사, 노래방, 목욕탕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또 다른 타격업종인 음식점업은 1차와 2차 대유행기까지는 모든 종류의 음식점 업체수가 감소하는 모습이나, 그 이후로는 업체수가 증가 추이로 돌아선 모습이다. 음식점업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배달이 크게 확산되면서 배달이 불가능한 노래방, 주점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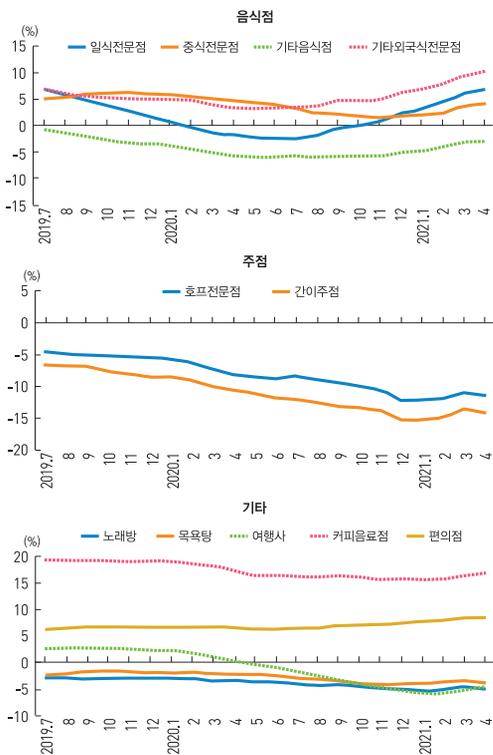


거리두기의 피해를 만회한 업종이란 점을 반영한 현상일 수 있다.

커피전문점은 신규 출점 확대가 활발한 업종이란 특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9% 증가에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약 15%로 다소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약 17%로 업체 수의 증가폭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편의점은 주택가에 있을 경우 거리두기의 수혜를 입은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1차와 2차 대유행기에도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V-27] 주요 대면서비스업 업종별 사업체 수 변화, 2019.7~2021.4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수의 증감률임.  
출처: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현황」, 각 연월.

며, 3차 대유행 이후로는 오히려 업체 수가 증가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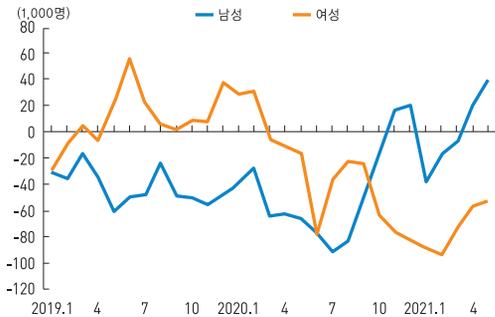
### 인적 특성별 자영업자 변동

[그림 V-28]을 보면 코로나19 위기가 있기 전 여성 자영업 고용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고 남성 자영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여성 자영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남성은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되던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20년 말부터는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은 대면서비스업에서 주로 자영업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2019년 기준 도소매업 21.7% > 숙박음식업 19.8% > 협회 및 기타 개인 14.8% > 교육 14.3%),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업 자영업 중심으로 충격이 가해지면서 여성 자영업 고용에 더 크게 타격을 입혔고,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비대면화에 따라 운수업이 증가하고, 제조업, 건설업이 20년 말부터 나아지기 시작한 영향을 받아 20년 4분기부터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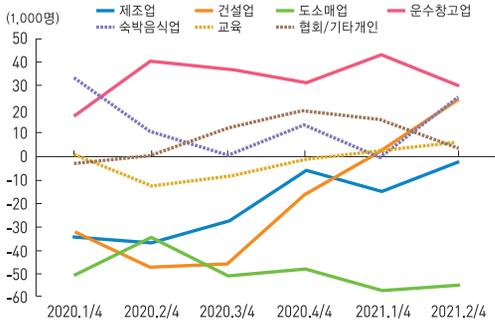
<표 V-12>의 자영업 고용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던 핵심 연령층(35-54세)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제조업, 건설

[그림 V-28] 성 및 업종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20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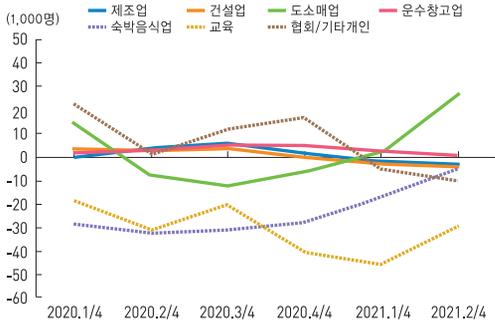
1) 성별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 동월 대비)



2) 업종별 남성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 동기 대비)



3) 업종별 여성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 동기 대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및 분기.

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었는데, 위기 이후 감소가 이어지거나 감소폭이 더 커졌고, 교육서비스업에서

〈표 V-12〉 연령 및 업종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1/4-2021.2/4

(1,000명)

	2019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15-34세										
전체	11	15	5	4	17	16	23	32	18	18
도소매업	-2	-4	1	-3	1	16	22	24	20	15
숙박음식업	9	15	16	3	-5	-8	-5	11	14	18
35-54세										
전체	-86	-80	-101	-89	-115	-162	-151	-126	-123	-48
제조업	-5	-6	-29	-43	-41	-43	-27	-10	-10	2
건설업	-34	-17	-19	-14	-11	-19	-19	-9	-8	-6
도소매업	-41	-44	-37	-25	-29	-33	-46	-38	-30	-14
운수업	-6	-13	-5	-5	-7	13	14	8	8	4
숙박음식업	-9	-9	-4	-14	-22	-29	-34	-10	-2	13
교육	15	18	5	-12	-17	-36	-28	-32	-29	-14
예술스포츠여가	3	-1	6	7	-8	-9	-8	-18	-12	-6
협회/기타개인	-12	4	-1	20	21	7	16	8	-12	-14
55세 이상										
전체	36	40	65	51	72	43	24	27	-1	22
농림어업제외	-16	30	48	22	13	-15	-7	0	-18	-4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분기.

도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감소폭이 2019년에 비해 커졌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증가 추세를 이어오던 55세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위기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보면 2020년 2분기부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년층 자영업자는 무점포 소매업에서 증가가 이어지면서 도소매업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점포수가 증가하는 업종인 커피전문점 같은 비음료점에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회복이 빨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수 면에서는 충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변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자영업자 소득변동 및 자영업에서 실직한 가구의 소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 가구를 패널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나 「한국노동패널조사」 같은 패널조사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들 조사자료의 활용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어렵다. 이와 같은 한계 안에서 간접적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를 확인하였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권 매출동향을 분석하였다. <표 V-13>의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1차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 2-4월과 2차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 8-9월, 3차 유행이 있었던 2020년 12월에 확연하게 매출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9년 10월과 2020년 12월을 비교하면 13.8%의 매출 하락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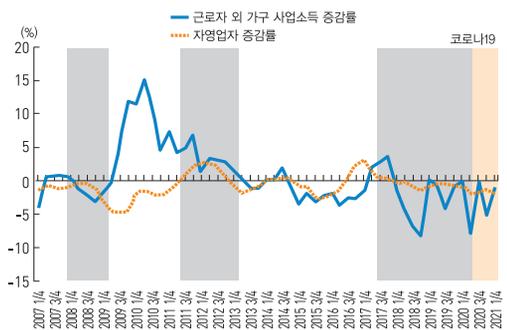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V-29]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가구주가 자영업자이거나 실업자인 가구의 사업소득을 전년도 분기 대비 증감률을 통해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증가하는 부문이라기보다는 감소하는 부문의 성격이 강

<표 V-13> 서울시 상권특성별 평균 월매출액, 2019.10-2020.12

	(만 원)		
	전체 상권	선방상권	충격상권
2019.10	1,928	1,928	1,928
2019.11	1,883	2,048	1,804
2019.12	1,919	2,048	1,857
2020.1	1,803	1,850	1,780
2020.2	1,699	1,748	1,675
2020.3	1,669	1,743	1,633
2020.4	1,712	1,805	1,667
2020.5	1,982	2,113	1,919
2020.6	1,860	2,025	1,780
2020.7	1,858	2,012	1,784
2020.8	1,727	2,009	1,590
2020.9	1,764	2,055	1,623
2020.10	1,805	2,199	1,614
2020.11	1,743	2,135	1,553
2020.12	1,661	2,086	1,455

주: 1)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에 의해 충격상권을 선별함.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1년...서울 골목상권 59% 매출 하락, 41%는 유지·상승", 보도자료, 2021.3.19.

[그림 V-29] 근로자 외 가구 사업소득 증감률, 2007.1/4-2021.1/4



주: 1)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사업소득 증감률의 경우 2019년까지는 1인 이상 비농림어가, 2020년부터는 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자료를 이용해 계산하였음.  
3) 음영은 통계청 기준순환일상 정점에서 저점을 향하는 경기 추축기를 나타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분기.

해서 경기 상승기라고 해도 소득이 꼭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감소율은 「가계동향조사」로만 보면 2008-2009년의 금융위기나 가장 최근의 침체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감소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이 지표는 가구주가 자영업자 또는 실업자인 가구의 분기별 사업소득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영업자만의 사업소득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 V-14>는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외 가구에서 감소한 사업소득을 어떻게 만회했는지를 보기 위해 각 소득 항목의 증감액을 계산하였다. 이를 보면 사업소득의 감소를 공적 이전소득 증가로 만회했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0년 2분기에 사업소득은 13만 원 감소했으나, 공적 이전소득은 34만 원 증가했으며, 2021년 1분기에 사업소득은 2만 8천 원 감소했으나 공적 이전소득은 16만 원 증가한 것이 그

런 예이다. 코로나 위기를 지원하는 공적 지원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맺음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기존의 경제위기와 달리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로 대면이 필수적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으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은 경기충격이 매우 컸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정도로 타격이 컸고, 재확산이 거듭되며 현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강제된 위축인만큼 다른 위기와 달리 일시휴업 등 조업단축으로 견디는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로나를 계기로 음식배달문화가 크게 확산되는 등 비대면화와 연관되는 부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다소간이라도 개선 흐름이 나타났으나, 그럴 수 없었던 대면 서비스 업종은 4차 대유행기까지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미 자리잡은 비대면화의 흐름이 이어지는 한 코로나19 이전으로 자영업 상황이 되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흐름에 기존 자영업자들이 잘 올라타도록 돕는 정책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감소 흐름 또한 뚜렷하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소득 감소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코로나19 정책

<표 V-14>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감액, 2020.1/4-2021.1/4

	2020				2021
	1/4	2/4	3/4	4/4	1/4
전체	100,874	244,552	72,553	53,457	13,248
경상소득	77,194	246,808	51,445	23,877	51,102
근로소득	66,879	25,164	-18,995	10,707	-70,591
사업소득	-16,321	-132,267	-10,391	-114,773	-28,445
재산소득	8,536	1,840	-3,518	-2,459	-5,128
공적이전소득	33,118	343,633	100,813	99,297	161,332
사적이전소득	-15,018	8,439	-16,465	31,104	-6,065
비경상소득	23,680	-2,256	21,108	29,580	-37,855

주: 1) 소득 증감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  
2) 전국 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실질 소득 기준.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분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위기 시에 정책 대응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코로나19 위기 시의 대응을 복기하고 미진  
한 점을 보완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